

2015 새 설계

정 현 복 광양시장

# “전남 제1 경제도시 건설·동서통합지대 조성 박차”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 지역경제를 재건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대한민국 행복수도’, ‘전남 제1의 경제도시 건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정 시장은 포스코 광양제철과 광양항 부두의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건설업, 철강산업 등이 하락세를 거듭하며 세수가 대폭 감소해 지역경제 또한 당분간 불황을 겪을 전망이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취임과 동시에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행정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행정을 3대 시정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광양읍권 발전 5대 핵심사업을 설정하고 인구 10만명 조기 달성을 위해 산업·경제기반 조성 복안을 발표한 뒤 이에 맞는 발 빠른 대응으로 실행을 거쳤다.

취임과 동시에 정 시장은 LF 아울렛 추진, 종합 운전면허시험장, 세풍산단, 익신산단 조성, 목성동 도시개발사업을 과감하게 돌파하며 특유의 독선과 추진력을 선보였다. 또 철강산업과 항만물류를 넘어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민·관·산이 협력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광양지역 협력협의회’를 발족하며 참여행정을 실현시키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 자녀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고 세일즈 행정으로 투자유치 확대 임기내 예산 1조원 시대 열 것

정 시장은 성황 근린공원 조성, 마동저수지 생태공원과 중마 금호해상공원 조성, 외우·성황·도이·의암지구 도시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른 행정적 지원과 해당 실과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영·호남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과 기능성 화학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25억원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또한 명당2지구, 초남2지구 등 산단 93만여㎡를 완료하고 적극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세일즈시장을 펼쳐 22개 기업 2067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11월 투자유치단을 꾸려 국제자매 우호도시인 중국 선전시, 인도네시아 칠레군 시를 방문해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50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광양항 물동량 창출의 교두보를 확보해 냈다.

정시장은 임기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행보도 활발하게 전개해 전년대비 220억원



###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광양 지역경제 재건
-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유치
- ▲LF 아울렛, 명당3산단 착공
- ▲목성동 도시개발 착공
- ▲성황·도이·의암지구 개발
- ▲명품교육도시 예산확대
- ▲백운산 건강·힐링지대 조성

이 증가한 1401억원의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또한 전남 제일의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희망도서관 건립 등 명품 교육도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서 행방이 넘치는 도시이미지 구축에도 시동을 걸었다.

“자녀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는 광양의 교육 이미지를 살려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장남간 도서관 설치,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중이다.

여기에 시민 평균연령이 37.3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의 특성에 맞게 임신·출산·보육·교육까지 ‘자녀 양육하기 좋은도시’ 시스템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백운산을 건강·힐링 공간으로 만드는 ‘치유의 숲’을 확대하고, 산림문화 휴양관을 건립해 테마형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광양시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 및 선진농업으로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다래, 표고, 화훼산업, 아열대 과수 등 지역특화 소득작목의 기반을 확대해 부농의 꿈을 조기에 실현시킨다는 복안이다.

광양시 대표 농산물인 매실의 차별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공·유통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를 더욱 확대해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정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취임 후 곧바로 ‘광양 해피데이’와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속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신념에 따라 시장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위한 장수노인 수당, 노인일자리 창출 등 현장복지 또한 기존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정현복 시장은 “올해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선 지역경제를 재건하는데 초점을 맞춰 행정력을 집중할 각오”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망덕 먹거리타운’ 신메뉴 개발 성과

### 재첩·매실 등 특산물 활용 차별화된 맛...경쟁력 견인

광양시가 ‘섬진강 망덕 먹거리타운’ 음식점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맛과 음식 콘셉트 개발 등 먹거리 관광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섬진강 망덕 먹거리타운’ 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원(국비 50%·시비 50%)을 투입해 특화거리업소 서비스·메뉴개발 컨설팅 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비스·메뉴개발 컨설팅’은 영업주의 경영마인드를 개선하고, 업주 스스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을 함양해 맛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남도 외식문화개발원에서 친절서비스, 메뉴개발, 선진적 견학, 품평회 등 일련 프로그램들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연말 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최종 보고 및 품평회’에서는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업소 5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메뉴개발 교육을 통해 배운 요리를 바탕으로 업소별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음식을 선보였다.

참가 팀들은 지역 특산품인 재첩과 매실 등을 활용해 한상 차림으로 재첩불고기만두, 더덕재첩구이, 새우재첩튀김, 재첩탕수육, 재첩물회, 고사리 장아찌, 파프리카 김치 등 다양한 신메뉴들을 선보였다.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상품성과 전문성, 대중성, 창의성, 적합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최우수상(하나로횃집), 우수상(가람횃집), 장려상(한기림, 나루터, 성호횃집)을 뽑아 시상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선보인 재첩과 매실을 이용한 한상차림에 대해 좋은 점과 개



음식전문가들이 지난 연말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섬진강 망덕 먹거리타운’ 서비스·메뉴개발 컨설팅 최종 보고 및 품평회에서 출품된 신메뉴들을 평가하고 있다.

선할 점을 보완·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 음식문화 품질개선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먹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해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인적자원개발센터

###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평가’ 최우수 등급

광양시는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과 광양만권 HRD(인적자원개발)센터가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4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아 명실상부한 산업인력 양성 최고의 요량으로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전남 동부권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청년실업자 및 구직자에게 지역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전문 기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도비 24억원을 확보해 기계제비, 전기설비, 산업장치설계, 천장크레인, 용접(특수용접 포함) 분야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수료생 267명 가운데 현재까지 218명이 취업(취업률 82%)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광양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노총,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협회, 울촌산단협의회 등 참여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각 기업체와의 채용협약을 체결하고 수시로 변하는 채용여건과 노동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교육수료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애써온 결과이다.

또한 매년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취업전략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편성에 활용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와 영세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 일반실업자, 취약계층 우선선발자(기초생활수급자, 자활대상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인, 공공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국내외 선진기업 경영과 조직의 HRD 동향, 사례 등 최신 창조경영의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HRD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광양시는 올해 ▲교육기관과의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 ▲고용정보망을 이용한 구직업체 알선 ▲참여기관과 연계한 취업활성화 ▲이직률 최소화를 위한 인성교육확대와 사후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1944-0444	남원시	0631626-1601
군산시	0631467-2500	순창군	0631653-0444
정읍시	0631531-5544	서울보급소	021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 062 227-9600 | 신문구독 - 062 220-0551 | 예향구독 - 062 220-0550